

## 번역에서 잃어버린 부분

### -요한계시록 2장 12-17절: 관용구 번역의 한 사례-

토마스 카우트\*

이달 번역\*\*

보통 관용구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본적인 어휘의 단위”는 “다른 것이 끼어들거나 어순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적절히 번역하려면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며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red tap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료 집단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체나 지연, 또는 개입이나 막대한 시간의 손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같은 원어민 영어 사용자가 *office mould*라는 어구를 만나게 되면 난처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 어구는 비록 *office*나 *mould*의 개별적인 형태로는 각각 잘 알려져 있고 그 의미 또한 사전에 잘 정의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어휘의 단위로서는 영어 사전에 소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합적 단위로서의 *office mould*는 오직 독일어에서만 의미가 통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의 *red tape*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관용구이다.

모든 자연 언어에는 이러한 관용구들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관용구들이 이미 형성된 전문 용어와 어구에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관용구를 “어휘적으로는 복합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단일어”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적으로는 복합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이러한 단어의 결합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합어의 의미는 각각의 단일한 어휘의 요소가 가진 의미를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용구의 의미나 그 의미론적 기능은 사전에 기초한 전통적인 어휘소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어에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관용구가 수록된 사전들이 존재한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어 사전은 관용적인 문구에 대해 미미한 힌트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사전들은 보통 번역어의 상응어로서 주석을 제공하며 때때로 선택된 특정 용례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는 정도다. 그렇지만 관용구는 고대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유럽 중동 지역 번역 컨설턴트.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언어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나는 요한계시록 중 버가모로 보내는 편지에서 선택한 단락(2:12-17)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특별한 사례를 통해 나는 이 특정한 관용구가 비록 한 어휘소가 의미의 변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리스어에 남아 있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관용어는 요한계시록 2:17의 “흰 돌”이다. 17절 전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새번역>)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τῷ νικῶντι δώσω αὐτῷ τοῦ μάννα τοῦ κεκρυμμένου καὶ δώσω αὐτῷ ψῆφον λευκὴν, καὶ ἐπὶ τὴν ψῆφον ὄνομα καινὸν γεγραμμένον ὃ οὐδεὶς οἶδεν εἰ μὴ ὁ λαμβάνων.

하늘에서 버가모 공동체에 보낸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1. 버가모에 있는 “사탄의 왕좌”(계 2:13)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 누가 기독교인 순교자인 안디바를 죽음에 몰아넣었는가?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폭력을 통해서인가?
3. “숨겨둔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숨겨둔”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계 2:17의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이 흰 돌 위에 쓰인 것은 누구의 이름인가?

<사탄의 왕좌>(계 2:13)

1864/65년 겨울에 독일의 도로 건설 기술자였던 Carl Humann이 고대 도시 버가모의 유적을 찾아갔다. 그 후 독일은 그 동안 제국이 되었고 프러시아와 Hohenzollern 가문의 지도력 아래 통일이 되었는데, 약 14년 후 발굴이 시작되었고, 버가모의 중요한 부분인 저 유명한 제우스 제단,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단 건물 또는 신전이 거인들의 소벽(frieze)과 Telephos 소벽과 함께 발견되어 베를린으로 옮겨져서 버가모 박물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에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 세워졌다. 버가모 박물관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압도적인 인상 때문에, 독

일 주석가들은 이 제우스 제단이 요한계시록 2:13에서 언급된 “사탄의 왕좌”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가진 생각이었다면, 그는 전통적인 그리스 종교의 최고신을 인간 통치자와 동일시했을 것이다. 이 인간 통치자는 최고신의 제사장적 대리인으로서 사탄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본다면, 고대 신학은 항상 정치학을 내포하고 있어서 일종의 “정치 신학”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

주전 2세기에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강력한 도시가 되었고, 약 20만 권의 두루마리를 소장한 도서관 때문에 유명해졌다. 심지어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주전 133년 이래로)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로마 속주 가운데 에베소 다음으로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버가모에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였으며, 이로써 그의 생전에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떤 주석가들은 버가모에서 신성시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사탄의 왕좌”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된 신학 언어가 가진 정치적 함의가 암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국가나 국가의 당국자들이 각각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에 사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전적으로 악하다고 간주될 것이다.

다른 제안은 신격화된 의사인 Aesculapius의 중요한 신전을 “사탄의 왕좌”로 보는 것이다. 사실, Aesculapius의 중요한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 오랜 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병과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 버가모에 찾아왔다. 아텐의 크세노폰은 이렇게 쓰고 있다:

Aesculapius는 가장 위대한 것을 성취하였다: 그는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으로 추앙받아야만 한다.

Kunaxa에서 페르시아 왕 Artaxerxes와 싸워 지고 나서 퇴각하는 길에, 크세노폰 역시 버가모를 통과했다. 그러나 Aesculapius 종교의 기초는 크세노폰 방문한 세기 전보다 더 먼저 버가모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Aesculapius 숭배를 주전 2세기에 버가모 도시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든 사람은 바로 버가모의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왕이었던 Eumenes II세였다. 그리스의 웅변가이며 수사학자인 Aelius Aristides는 주후 2세기까지도 버가모의 Aesculapius의 치유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Aesculapius는 가장 대중적인 그리스 신들 중 하나였다. Aesculapius의 별명과 상징은 뱀인데, 지팡이를 휘감고 있다. 원래 Aesculapius는 뱀의 모습으로 지하에 살고 있던 신으로 숭배를 받았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9에 사탄은 뱀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처럼 Aesculapius와 사탄을 위해 사용된 상징적인 이미

지는 매우 비슷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하여금 이교의 영웅과 신격화된 Aesculapius의 정체성을 추론하여 구원자와 사탄으로 믿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경우, Aesculapius는 사탄의 이교적 화신으로 보였을 것이다.

버가모에 있던 Aesculapius의 신전이 “사탄의 왕좌”로 동일시될 수 있었다면, 이교도들의 치유자인 Aesculapius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사탄으로 해석되었음 직하다; 이것은 그것이 현대적인 이해로 탈바꿈하여 비신학적이고 세속화된 정치적 언어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과 체력을 위한 충동과 갈망은 궁극적으로 사탄 자신으로부터 유래하며 사람을 악마적 지배 아래 두게 만든다. 이 경우,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구출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전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해석들은 모두 한 가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왜 하필 버가모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이 세 가지 정치-신학적 해석이 가진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거나 그저 특별한 의도가 없이 제시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버가모는 주후 1-2세기에 하나의 중요한 Aesculapius 숭배지이든지 아마 가장 대중적인 센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버가모를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근원과 센터로서 “사탄의 왕좌”로 구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인가? 당시에 Aesculapius가 숭배되며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낫기를 구하는 500여 곳의 성스러운 장소가 있었다. 가장 유명한 장소는 그리스의 Epidaurus였다.

더 나아가서,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다. 총독은 에베소에 거주하였다.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시행되고 진행되었다.

끝으로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버가모는 제우스 숭배의 센터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탄의 왕좌”가 버가모에 위치해야만 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버가모의 어떤 건물이 사탄의 악한 세력을 두드러지게 상징하는데 활용되었을까? 비록 우리가 버가모의 어떤 특정한 건물을 “사탄의 왕좌”로 지목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버가모 도시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 때문에 버가모가 특별히 그러한 불공평한 판정을 받아야만 했단 말인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해석 모두는 요한계시록 13:2와 맞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2:9에 따르면 사탄과 동일시되는 용이 그의 왕좌를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넘겨준다고 되어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2에서 “사탄의 왕좌”는 분명히 버가모의 특정한 건물을 가리키지 않는 것 같

은데, 그렇다면 그 건물이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 또 다른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왕좌”는 요한계시록 13:2에서 사탄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은유, 즉 *concretum pro abstracto*의 환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버가모의 어떤 건물이나 실제 장소가 “사탄의 왕좌”로서 간주되는지를 묻기보다 오히려 왜 버가모가 사탄적 세력의 센터로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물어야만 한다.

#### <안디바의 순교>(계 2:13)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본문에서 다음의 석의적 난제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2:13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실함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다. 불행하게도 안디바와 그의 순교에 대하여 남아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안디바를 죽였는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증거가 없이 논증하고 있다: 우리는 소아시아에서 인증된 법적 당국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처형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독립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안디바가 공식 법정에서 고소를 당해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끔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은 폭도가 안디바를 난폭하게 죽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증거도 없는 추측이다. 또한 상반적인 결론, 즉 안디바가 공식 법정에서 고소와 정죄를 받고 처형되었다는 견해 역시 불행하게도 증거 없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버가모에 보낸 편지의 문맥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안디바가 올바르게 진행된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소와 정죄와 처형을 당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버가모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버가모를 “사탄의 왕좌”라고 불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건물이나 특정한 성소가 아니며, 오히려 여기 버가모에서 아마 처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그의 믿음 때문에 지방의 정식이요 당국자들에 의해 박해받고 고소를 당하고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 버가모를 “사탄의 왕좌”로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과 체력을 추구한 것이나, 제우스/쥬피터를 경배한 것이나, 심지어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한 것이 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적대

적인 악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반감으로 이끌며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파괴와 말살을 겨냥한 격렬한 증오가 바로 그러한 악의 근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감추어 둔 만나>(계 2:17)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줄 것이다”(NRSV)라는 어구는 초기 유대교 해석을 반영하는 것인데, 바로 만나를 천상의 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해석을 이미 구약성서(출 16:4; 느 9:15; 시 78:24; 105:40; 지혜 16:20)에서 찾을 수 있고, 신약성서(요 6:31-33; 고전 10:3)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출애굽기 16:32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나 얼마를 거두어 미래 세대를 위해 보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인 음식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NRSV)였다.

시리아어로 된 바룩의 묵시록에 보면, 만나가 하늘에 저장되어 있으며 종말에 신실한 자들에게 풍족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해석을 발견하게 된다. Pseudo-Philo의 성서 고대기(Biblical Antiquities)에 보면, 만나를 천사들의 빵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만나가 저장되어 있고 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었던 하늘에 있는 장소를 보여준다. 또한 시빌의 신탁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만나를 줄 것이며, 아무도 더 이상 경작하고 추수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만나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만나가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는 초기 유대교와 또한 기독교적 신앙을 증거해 준다. 그리스어 κρύπτειν은 단지 “숨기다, 묻어두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덮다, 보호하다, 저장하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7에서의 의미는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여 사탄에게 승리한 것으로 판명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저장되어 간직된 만나를 줄 것이라는 의미다.

신명기 8:3, 16은 만나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음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이 그 만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7의 “감추어 둔 만나”는 이 미지의 만나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흰 돌>(계 2:17)

아마도 다음의 문구는 다른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짐작할 만한데, 그것은 일곱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한 약속들은 본문에 반영된 상황과 필요와 밀접하게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정보에 대한 해석은 내가 원천 언어의 관용어들을 추적하는 전략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으로 인도하며, 그것은 이러한 관용어들의 의미를 적절하게 수용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2:17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자 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이라는 어구는 그리스어로 여격 분사인 *νικῶντι*인데, 그것은 문맥에 따르면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사탄 및 모든 악한 세력과의 종말론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따라서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영어 번역본들에 있어서 오래되고 확고한 전통은 요한계시록 2:17하반절을 번역하기를 흰 돌에 이름을 기록한 것을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이미지로 번역함으로써 문자적으로 돌에 새겨 넣은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의 해석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부적,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받은 패, 축하연에 들어갈 입장표.

*Geneva Bible 1599*

...and will giu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e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uing he that receiueith it.

*King James Version 1611/1769*

...and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ving he that receiveth it.

*The Darby Bible 1884/1890*

...and I will give to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one knows but he that receives it.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up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one knoweth but he that receiveth it.

*Bible in Basic English 1949/64*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of which no one has knowledge but he to whom it is given.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which no one knows except him who receives it.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7*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which no one knows but he who receives it.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and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New Jerusalem Bible*

...and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known only to the person who receives it.

*New Living Translation*

And I will give to each one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will be engraved a new nam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and I will give a white stone, and on the white stone is written a new nam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Revised English Bible 1989*

...I will also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it will be written a new name, known only to him who receives it.

*Today's English Version-Good News Bible 1994*

I will also give each of them a white stone on which is written a new



nam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Revised Webster Bible Update 1995*

...and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except he that receiveth it.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9*

I will also give each one a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it. No one will know that name except the one who is given the stone.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with a new name written on the ston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프세포스”(ψῆφος)이다. 그리스어 “프세포스”는 작은 돌을 가리키거나 관련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조약돌(pebble)을 가리킨다. 이 조약돌은 강변이나 해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약돌들은 보드 게임(board game), 주사위, 제비뽑기, 계산용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프세포스”가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사용된 것은 비밀스러운 투표의 과정에서였는데, 투표는 시의회나 또는 보다 자주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의 두 개의 고대 문헌을 보면 주전 5세기 전반에 아테네의 법정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릇(하나는 유죄 판결에, 다른 하나는 무죄 판결에 사용되었다)에 투표한 것을 집어넣는 관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투표에 사용된 작은 조약돌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투표한 조약돌이 담긴 그릇은 중요하였다.

<p>Ἄγαμέμνων          δίκας γὰρ οὐκ ἀπὸ γλώσσης θεοῖ          κλυόντες ἀνδροθήτας          Ἰλιοφθόρους εἰς αἵματηρὸν          τεύχος οὐ διχορρόπως ψήφους          ἔθεντο: τῷ δ' ἐναντίῳ κύτει ἐλπὶς          προσήει χειρὸς οὐ πληρουμένῳ.</p>	<p>아가멤논에게:          인간의 입으로가 아니라 신들 자신이          혐오스러운 트로이에 대한 보복을 선언          하였는데, 그들은 결단하여 표를 죽음          의 투표함에 넣었고, 다른 병은 거의 희          망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i>Aeschylus, Agamemnon 813-817</i></p>
<p>Ἄθήνη          ἔμὸν τόδ' ἔργον, λοισθίαν          κρίναι δίκην: ψήφον δ' Ὀρέστη          τήνδ' ἐγὼ προσθήσομαι. ... νικᾷ</p>	<p>아테네에게:          지금은 내가 중요한 판결을 내릴 차          례다: 나는 내 조약돌을 Orest를 위하여</p>

<p>δ' Ὁρέστης, κἄν ισόψηφος κριθῆ. ἐκβάλλεθ' ὡς τάχιστα τευχέων πάλους, ὅσοις δικαστῶν τοῦτ' ἐπέσταλται τέλος.</p>	<p>병에 넣는다... 그러나 표가 동수가 되면 무죄가 된다. 너희 배심원들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 체비뽑기한 표를 병에서 빨리 꺼내라. <i>Aeschylus, Eumenides 734f, 741ff</i></p>
--	---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표를 숨기기 위한 목적에 충분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지배하는 당국자들로부터 숨기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웅변가 Lysias가 주전 403년 이후에 말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p>οἱ μὲν γὰρ τριάκοντα ἐκάθηντο ἐπὶ τῶν βάθρων, οὐ νῦν οἱ πρυτάνεις καθέζονται: δύο δὲ τράπεζαι ἐν τῷ πρόσθεν τῶν τριάκοντα ἐκείσθην: τὴν δὲ ψῆφον οὐκ εἰς καδίσκους ἀλλὰ φανερὰν ἐπὶ τὰς τραπέζας ταύτας ἔδει τίθεσθαι, τὴν μὲν καθαίρουσαν ἐπὶ τὴν ὑστέραν, ὥστε ἐκ τίνος τρόπου ἔμελλέ τις αὐτῶν σωθήσασθαι;</p>	<p>지금은 관리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 서른 명의 참주(the Thirty tyrants)가 앉아 있었다; 서른 명의 참주 앞에는 두 개의 탁자가 있었다. 조약돌들은 투표함 안에 넣지 않고 이 탁자들 위에 공개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었다; 유죄 판결을 위한 조약돌은 참주들 가까운 탁자에 놓아야 했다; 어떻게 아무라도 무죄 방면될 수 있었겠는가? <i>Lysias oratorio XIII, 37</i></p>
--	--

그 이후 아마 주전 5세기 후반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약돌이 도입되었던 것 같다. 아테네 문학의 전문가인 Pausanias는 Aristophanes와 동시대인인 저 유명한 Kratinos의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희극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p>«ΑΙΕ ΟΥΜΠΑΝΙΑ»: τὰ τοῦ λευκοῦ κυάμου γένη, ᾧ ἐψηφίζον καὶ ἐχειροτό-νουν. Κρατίνος ἐν Χείρωσιν καὶ παροιμία τὸ "αἰξ οὐρανία" ὁμοία τῷ "λευκὴ ψηφός": ὡς γὰρ Ἀμάλθεια τροφὸς ἦν τοῦ Διός, οὕτω καὶ ἡ τοιαύτη ψηφός ἔτρεφε τοὺς δωροδοκοῦντας δικαστάς.</p>	<p>“하늘 염소”: 흰 콩의 씨를 가지고 공회에서 투표를 한다. Kratinos가 Cheirones라고 하는 그의 희극에서 이것을 비꼬아 말하고 있다. “하늘 염소는 투표에 사용되는 흰 조약돌과 비슷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염소인 Amaltheia가 아기 제우스를 먹였듯이, 조약돌이 부패한 배심원들을 살찌운다.” <i>Pausanias Atticus(주후 2세기) Atticon onomaton synagoge Alpha.48</i></p>
---	---

Plutarch는 Alcibiades 전기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 이것은 검은 조약돌과 흰 조약돌이 예측할 수 없이 기능하는 것과 아테네 법정이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p>ἐν δὲ Θουρίοις γενόμενος καὶ ἀποβάς τῆς τριήρους, ἔκρουσεν ἑαυτὸν καὶ διέφυγε τοὺς ζητοῦντας. ἐπιγνόντος δὲ τινος καὶ εἰπόντος: "οὐ πιστεύεις ὦ Ἀλκιβιάδῃ τῇ πατρίδι;" "τὰ μὲν ἄλλ'" ἔφη "πάντα: περὶ δὲ τῆς ἐμῆς ψυχῆς οὐδὲ τῇ μητρὶ, μήπως ἀγνοήσασα τὴν μέλαιναν ἀντὶ τῆς λευκῆς ἐπενέγκῃ ψῆφον." ὕστερον δ' ἀκούσας ὅτι θάνατον αὐτοῦ κατέγνω κεν ἡ πόλις: "ἀλλ' ἐγὼ" εἶπε "δείξω αὐτοῖς ὅτι ζῶ."</p>	<p>그(Alcibiades)가 Thurioi에 도착하자, 재판관이 배에서 내려 잠복하고 집행관 들은 도망쳤다.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질문하였다: "Alcibiades여, 당신은 자신의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일반적으로는 신뢰한다; 그러나 내 자신의 생명에 관한 한, 나는 나의 어머니조차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주의한 가운데 흰 조약돌 대신에 검은 조약돌을 투표함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시의회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i>Plutarch, Alcibiades 22</i></p>
--	---

Demosthenes와 Aischines 이후로, “조약돌을 주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히 “투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διδό-ναι τινὶ ψῆφον*라는 문구가 가진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의미는 투표하는 조약돌을 돌린다는 것이거나 보다 많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명사 *ψῆφος*에서 파생한 동사 *ψηφίζεσθαι*는 “투표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심지어 거수하여 투표한 경우에도 그것은 *ψηφίζεσθαι*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판결이나 공적인 결정을 그 방법이나 기술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보통 *ψηφισμα*라고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용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p>οὕτω δίδωσιν ἐν μὲν τῇ βουλῇ τὴν ἐπιχειροτονίαν, ἐν δὲ τῷ δικαστηρίῳ τὴν ψῆφον: ἐὰν δὲ μηδεὶς βούληται κατηγορεῖν,</p>	<p>그리하여 그는 시의회에서는 거수로, 그리고 법정에서는 조약돌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아무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당사</p>
---	---

εὐθὺς δίδωσι τὴν ψῆφον:	투표하도록 하였다. <i>Aristoteles, Constitution of the Athenians 55</i>
-------------------------	--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본 것처럼, 주전 4세기에 원반 모양의 청동 메달이 아테네에서 투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심지어 이들 청동 동전들도 ψῆφοι로 불렸다. 아테네에서의 최근 발굴물은 여섯 개의 이러한 청동 “조약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청동 조약돌들은 한 편 원반의 중앙에서 튀어나온 작은 통과 잘 맞았다. 청동으로 된 이 ψῆφοι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했는데, 하나는 가운데가 빈 통이고 다른 하나는 속이 찬 단단한 통이었다. 속이 찬 통을 가진 원반은 흰 조약돌 대신에 사용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고소당한 사람에게 호의적인 투표를 하여 혐의를 벗겨주는데 사용하였다. 속이 빈 통을 가진 원반은 원고를 드는 검은색 조약돌을 대체하였다. 재판관은 투표하는 원반(여전히 조약돌이라고 불리웠다!)을 청동 항아리(투표함의 역할을 하는)에 넣을 때, 엄지와 검지(pointing finger)가 통을 가리도록 하여 어떻게 투표하는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실제의 조약돌에서 청동 원반으로 이렇게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재판관들이 (항상 그렇듯이) 부패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뇌물을 줄 사람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을 할 수 있었던 데 있었던 것 같다. 그리스어 사전편찬가인 Pausanias(주후 2세기)는 재판관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아테네 어휘와 잠언의 수집물들 가운데 하나의 흥미 있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 “하늘 염소”라는 표제어에서 그는 여신 Amaltheia가 염소의 젖으로 제우스를 먹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우스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염소에게 하늘에 성좌로 존재하게 하여 영생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Pausanias는 “하늘 염소”라는 표현이 또한 흰 콩의 순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똑같은 콩으로 투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는 흰 조약돌이 선물과 뇌물을 바라는 재판관들을 살찌우는 것과 같이 염소가 제우스를 먹였다는 의미에서, Amaltheia의 염소가 투표하는 데 사용된 조약돌과 같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도구들은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장치를 무작위로 작동시켜서 어떤 재판관도 사건을 자기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물시계를 사용해서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있었다. 시간은 물의 choes(1 chous는 한 갤런과 거의 맞먹는다)에 의해서 측정되었고, 물이 다 “바닥나면” 시간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

투표에 사용된 청동 원반의 등장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요한계시록 2:17의 ἐπὶ τὴν ψῆφον ὄνομα

καινὸν γεγραμμένον이라는 문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원반에는 동전에 ΨΗΦΟΣ ΔΗΜΟΣΙΑ에 쓴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공적인 투표용 조각돌” 또는 “투표용 조각돌이며 백성에게 속함”이라는 의미였다. 역동적으로 번역하면 “국민투표”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부패한 재판관들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은 강변에서 먼저 조각돌을 주워 와서 재판정에서 모조 청동 조각돌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청동 조각돌은 백성들이나 도시/국가에 속하며 도시나 공적 사안에 관련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당시까지 당국자들에 의해 발행되고 새겨진 공적인 동전만이 법정과 원로원에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동전들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돌”로 불린 것은 이러한 은유적 사용이 그리스어 어휘소의 다양한 의미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과 이 경우에는 기능이 재료보다 의미적으로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름”(ὄνομα)이라는 그리스어 어휘소는 단지 고유명사만이 아니라 사물과 사안의 칭호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7에서 언급된 것을 자연인으로서 가정할 필요는 없다. 투표하는 데 사용된 조각돌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오히려 ἐπὶ τὴν ψῆφον ὄνομα καινὸν γεγραμμένον이라는 문구는 전달된 메시지가 민사법정이나 공식적인 국가 법정이 아니라 오로지 새로운 법정, 즉 그리스도 법정의 이름으로 전달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와 재판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 ψῆφος는 투표에 사용된 조각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심지어 거수나 조그만 금속 원반으로 투표를 한 경우에도 투표 자체를 의미한다. 형용사 수식어 “흰”(λευκη)과 관련하여 명사 ψῆφος는 배심원에 의해 형을 면제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검은 조각돌(μελαίνη ψῆφος)은 법정에서 정죄하는 표를 나타낸다. 간혹 ψῆφον διδόναι는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현대 그리스어에서 ψῆφος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Mandeson이 편찬한 그리스어-독일어 사전에 보면, ψῆφος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성, 투표, 조각돌, 작은 돌, 투표 공간, 투표권, 투표 제도

Mandeson은 또한 특별한 용례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그것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δίδω ψῆφον λευκήν* = 흰 공을 주거나 투표하다

*δίδω ψῆφον μαύρην* = 검은 공을 주거나 투표를 거부하다(즉, 반대표를 던지다)

비록 검은색에 대한 단어가 현대 그리스어에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 관용구는 *μελαίνη* 대신에 *μαύρη*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그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이 관용구는 주후 1-2세기 라틴 저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어서 로마 문화에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신약성서 저자들과 동시대인이며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동시대인이 분명한 Plutarch는 고대 로마인의 생활과 로마 사회를 묘사할 때 사용하기조차 한다. 물론 로마인들은 법정과 *comitia*라고 하는 일반 공의회에서 *calculi*나 *lapilli*, 즉 작은 돌이나 조약돌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무로 된 *tabellae*, 즉 작은 탁자를 사용했다. 법정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tabellae*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absolvo*(“면제하다, 무죄로 하다”의 뜻)에 해당되는 A가 표시되어 있었고, 하나는 *condemno*(“정죄하다”의 뜻)에 해당되는 C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세 번째 것은 N.L., 즉 *non liquet*(“증립”의 뜻)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능성은 아테네의 법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 법정과 여기 신약성서에서 조약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관용적 용례의 배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죄 투표를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Aischylos에 의해 기록된 Orest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한다: Orest에 호의적인 투표를 하였고 이를 통해 정죄와 무죄의 표를 동수로 만들어서 보복의 어두운 영인 Eumenids에 의해 제기된 혐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한 자는 바로 Athena 여신이었다. Orest는 그의 어머니 Klytaimnestra에 의해 살해된 아버지 Agamemnon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아폴로 신의 명령을 따라서 어머니 Klytaimnestra를 살해했었다. 이러한 그리스 신화를 알고 또한 ψῆφος가 보통 “투표”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한계시록 2:17의 흰 돌이 부적이나 승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시나 천상 연회에 들어가는 입장표로 기능한다는 의견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 무죄 방면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다면, 흰 돌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가 배심원에 의해서 던져진 다수표에 따라 안디바가 공식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다는 사실에 의해 촉구된 것인가 하고 질

문할 수 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 2:17의 간접적인 정보는 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경우 내가 보기에는 거의 틀림없이 버가모가 사탄이 그의 왕좌를 가지고 있던 도시로 언급된 것은 버가모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 중 최초로 공식적인 제국 법정이 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때문에 버가모를 “사탄의 왕좌”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국가나 국가의 당국자들에게 전혀 적대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치유와 건강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거부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와 로마의 일반적인 전통을 정죄하지 않지만, 어떤 현대 국가든 물론이고 고대의 로마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권리와 권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어떤 국가나 정부라도 스스로를 종교와 신앙을 만들거나 통제하는 권위를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화신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2:17에서 흰 돌이라는 관용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주신 구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감추어 둔 만나에 대한 은유 역시 이러한 방향과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내하며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상의 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약속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요한계시록 2:17에 대한 번역으로서 다음의 번역을 제안한다:

내가 잘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예비한 만나를 줄 것이며,  
새 권위의 이름으로 무죄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외에 이러한 권위를 알 사람은 없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진실로 그리스도인 예언자였는데, 신약성서 저자 중 정치신학, 즉 그리스도교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놓여 있던 문제를 깨닫고 진정으로 이해한 유일한 저자이다.

<주요어>

관용구 번역, 흰 돌, 투표용 조약돌, 고대 그리스어 관용구, 투표용 청동 원반.

<Abstract>

## Lost in Translation

### -Rev 2:12-17: A Case Study for Idioms in Translation-

Dr. Thomas Kaut

(UBS Europe and the Middle East Area Translation Consultant)

Idioms such as «red herring» (*a false and misleading clue*), «white elephant» (*a useless huge burden*), or «black leg» (*a person working, while fellow labourers are on strike*) pose a particular problem to translation and can hardly be tackled by a lexicographical word-for-word translation strategy. Idioms are of particular difficulty, where ancient books, e.g. the Bible, are being translated.

This article takes up a phrase of the last Biblical book, *Revelation 2:17: I will also give each of them a white stone on which is written a new name that no on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Good News Bible 1994*), and shows in a case study that the phrase *to give a white stone to someone* is clearly a wide spread Ancient Greek idiom deriving from court practice and language with the precise meaning *to pass the verdict of not guilty*.

In the early fifth century B.C. (*Aischylos, Agamemnon* 813-817) judges or rather juries expressed their decisions by placing pebbles into two different voting-urns, one for condemning, the other for acquitting votes, both jointly covered by a funnel-shaped top, in order to ensure the secrecy and independence of each vote. In the second half of the fifth century B.C. (*Kratinos, Cheirones*) two different pebbles, white for *not guilty* and black for *guilty* were cast into one special jug. Finally, in the second half of the fourth century B.C. (*Aristotle, Constitution of the Athenians* 68) pebbles were not anymore used in court decisions. Small bronze discs with tubes as central axles in two different distinctive shapes served this purpose. The black pebble was replaced by a bronze disc with a hollow tube and the white one by a disc with a filled tube. Jurors covered with thumbs and pointing fingers the two ends of the tubes so that no one could see, which vote they were about to cast, but every one could see that they were casting a vote and one vote only. In 321 B.C.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Athens and thus also the courts with juries were abolished. From then on most likely pebbles or bronze discs were not anymore in use for making



decisions. But Greek authors of later times (Dionysios, Philo, *Plutarchus*, *Josephus*, *Lucianus*, *Cassius Dio*, *Klement*) still use the phrase *to give a pebble* as an idiom meaning *to pass a verdict*. Thus the phrase *to give someone a (white) pebble* survived as an idiomatic expression in the Greek language until today.

The bronze discs were inscribed with the words ΨΗΦΟΣ ΔΗΜΟΣΙΑ (*Pebble of the People*), which express that ultimately the Athenian people cast the decision (as does the modern phrase *In the Name of the People*). Thus the inscription shows that the bronze disc was called a pebble inspite of being from bronze metal and that the inscription refers to the the authority in whose name a dicision is taken.

The phrase λαμβάνειν ψῆφον (literally: *to receive a pebble*) is also a coined idiom and does not refer to the person being accused and judged but to the juror, who receives the pebble, in order to pass a verdict either of guilty or of not guilty.

Revelation 2:17b therefore may rather be translated like this: *In the name of a new authority I will declare him not guilty. Apart from him who passes the verdict no one knows this authority.*